

파나마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7

I. 일반개황	
II. 경제동향	1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파나마

I. 일반개황

면적	76천 Km ²	GDP	197억 달러(2007년)
인구	3.3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5,982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Balboa(B)
대외정책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1.0

-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총인구 330만 명, 1인당 GDP 5,994달러('07년)의 중소득국가임. 금융시장 개방과 미달러화의 자유로운 유통 등의 요인으로 중계무역, 국제금융 등 서비스 분야가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금융거래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건설업 및 관광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04년 9월 토리호스(Torrijos) 정부 취임 이후에는 빈곤 퇴치 및 고용증대, 부패 척결,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7.5	7.2	8.7	11.2	8.6
재정수지 / GDP	-4.9	-3.2	0.5	3.5	1.3
소비자물가상승률	0.4	2.9	1.1	4.2	10.7

자료 : IFS, EIU

□ 경제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2004-06년 파나마는 국제경제의 성장세 지속, 역내 주요 교역국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경제의 호조로 7~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왔음.
- 2007년에도 국제경제 호조에 따른 파나마 운하 수입 증가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최고치인 11.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운하 수입 감소, 연료비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운하확장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황, 고용 창출, 내수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8%대의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정부의 지속적인 세수 증대 및 정부지출 축소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적자기조를 보여 왔던 재정수지는 2006년 흑자로 반전된 후, 2007년에는 GDP 대비 3.5%까지 상승하였음.

- 2008년에는 운하 확장, 빈민구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 농업부문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세 둔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등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축소된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압력 심화

- 2007년에는 토리호스(Torrijos) 정부의 휘발유 및 디젤 수입관세 감축 등 물가상승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4.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 28년간 중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08년에도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료품 부문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제조업 기반 취약

- 파나마 경제는 총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전체 산업 중 파나마 운하 수입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인프라 설비가 미비함.

□ 외부의존적 경제구조

- 주요 수출품목은 바나나, 새우, 커피 등으로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제가격변동과 기후 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자본재, 소비재 및 석유제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요 교역 대상국은 미국으로, 2006년 전체 수출의 38.5%, 수입의 27.4%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 파나마 운하 수입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의 경기가 세계 경기와 부침을 같이하는 등 경제전반이 외부요인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임.

□ 원유 수입국

-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의 대부분을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국제원유 가격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 추구

-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 및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수익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 2006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공사기간 7~8년, 최소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FDI 유입 확대

- 1997년 전력 및 통신의 민영화를 계기로 FDI 유입이 확대되었으며, 교통인프라, 관광, 건설 등의 부문에도 FDI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어 왔음.
- 2004-05년에는 운하확장과 관련하여 건설 및 금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연평균 10억 달러 가량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2006년에도 26억 달러의 기록적인 FDI 유입이 이루어짐.

□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 또리호스 정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1% 수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5년 1월 재정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정부의 지속적인 세수 증대 노력 및 정부지출 축소로 2006년에는 GDP 대비 0.5%로 재정수지가 10년만에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2007년에는 3.5%로 흑자폭이 확대됨.

- 2008년에는 파나마 확장 사업 등 공공인프라 및 교육, 보건 등의 사회부문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재정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재정수지 흑자 목표인 GDP의 1% 이상 수준에서 재정흑자가 유지될 전망이다.
- 한편, 파나마는 달러공용화 도입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중은행의 유동성 변화에 따라 통화시장의 흐름이 결정됨. 이 때문에 2008년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제한적임. 향후,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기준금 상향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012	-759	-552	-1,577	-2,933
경 상 수 지 / G D P	-7.1	-4.9	-3.2	-8.0	-12.3
상 품 수 지	-1,538	-1,316	-1,726	-3,313	-5,124
수 출	6,078	7,591	8,476	9,312	10,352
수 입	7,617	8,907	10,201	12,625	15,476
외 환 보 유 액	611	1,192	1,316	1,915	1,785
총 외 채 잔 액	9,378	9,743	9,989	10,450	11,035
총 외 채 잔 액 / G D P	66.1	63.0	58.3	52.9	46.5
D. S. R.	34.1	21.3	29.8	18.0	19.8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 2004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7.14%로 1999년 10.1%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5-06년에는 남미 지역 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 증대와 전반적인 세계 경기 호전에 힘입은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및 서비스수지 흑자폭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각각 GDP 대비 4.9%, 3.2%로 축소되었음.
- 2007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데 반해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7.9%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도 동일한 요인이 심화되어 12%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 파나마의 외환보유액은 수출 증가, FDI 유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외채상환부담 다소 과중

- 파나마의 2007년 말 기준 총 외채규모는 105억 달러로서 GDP의 52.94%에 달하는 등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이며, 향후 운하 확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동국 정부가 세제개혁안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안 등 꾸준한 재정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단기간에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4년 Torrijos 정부 출범

- 2004년 9월 취임한 민주혁명당(PRD)의 마르틴 토리호스(Martin Torrijos)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설문조사에서 80%의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등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부패 척결, 행정 절차 개혁, 파나마운하 운영방안 개선 등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해왔음.

□ 수정 사회보장제도(CSS) 개혁안 통과

- 2005년 2월 토리호스 대통령이 그동안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던 콜론자유 무역지대, 수출가공단지 등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 포함된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자 산업계의 반발이 잇따랐으며, 만성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5월 말 의회에서 연금수혜연령 상향조정 및 보험료 인상, 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제도(CSS) 개혁안을 통과시킨 이후 토리호스 대통령의 지지도는 21%까지 하락하였음.
- 건설노동자, 의사,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1달 이상 장기파업을 시도하는 등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6월 21일, 토리호스 대통령은 CSS 개혁안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노조 및 공공부문 근로자 대표, 재계 인사, CSS 임원진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개혁안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05년 말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수정된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토리호스 대통령의 지지율도 2006년 1월 여론조사에서 57.1%로 회복됨.

□ 2009년 5월 대선 예정

- 현 여당인 민주혁명당(PRD)이 최근 수년간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9년 5월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긴 하나, 인플레이션 및 범죄율 상승, 빈민퇴치 정책의 성과 부진,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토리호스 대통령의 지지도가 34%(2008년 6월)까지 떨어지는 등 민주혁명당(PRD)이 대선 전까지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민주혁명당(PRD)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전 주택부 장관이었던 Balbina Herrera와 파나마시 시장인 Juan Carlos Navarro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Balbina Herrera가 당내 원로파들의 지지를 받으며,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등의 국가들과 FTA 체결

- 파나마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 발효가 현재 최우선 외교과제임. 2006년 12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미국 의회내의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8년 대미 무역 특혜 조약인 카리비안지역이니셔티브(CBI)가 만료될 예정으로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파나마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파나마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2006년), 온두라스(2007년), 과테말라(2008년)와도 FTA를 체결하였음. 특히,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 시 파나마는 항만, 운송, 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대중남미 교역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비교적 안정 유지

- 2005년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장기파업 및 가두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존재하나,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반정부 단체의 활동도 없어 내란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2008년 2월 S&P, 파나마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 OECD는 거시경제지표 호전 및 정치적 안정, 은행부문의 발전, IMF 등 국제기구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 기업환경 개선 등을 근거로 하여 2007년 6월 CRE 회의에서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2008년 2월에는 S&P가 거시경제 및 정치 안정, 재정수지의 개선, 달러공용화에 따른 통화시장의 장기적 안정 등을 이유로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BB+로 한등급 상향조정하였음.

- o OECD : 4등급 ('06. 6) → 3등급('07. 6)
- o Moody's : Ba1 ('97. 1)
- o S&P : BB ('01. 11) → BB+('08. 2)
- o Fitch : BB+ ('05. 4)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대부분의 ECA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장·단기 인수

- o US EXIM : 최고부보율 적용
- o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o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국제신인도는 비교적 양호

- 1980년대 중반 리스케줄링을 경험한 파나마는 1987년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치,사회 안정 및 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되었으며, 1990년에는 파리클럽과 공적채무 재조정에도 합의하였음.

- 1996년 7월에는 38억 달러 규모의 상업채무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브래디 본드를 발행하는 등 동국 정부의 외채부담 완화 노력으로 파나마의 대외채무는 거의 모두 재조정되었으며, 이후 외채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채권기관과의 관계 정상화로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2006년 1월 14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30년 만기, 쿠폰 이자율 6.7%로 기존 발행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본드로 조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브래디 본드를 환매(buy back)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파나마 정부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민영화 자금으로 외채를 상환, 외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파나마 정부는 향후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신인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력 중인데, 파나마 운하 위원회(Autoridad del Canal de Panama, ACP)는 본 사업에 총비용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외부 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용은 ACP 전망치의 약 세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는 3,479백만 달러(2007년)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이 2007년 우리나라의 대 파나마 수출의 88.8%, 파나마로부터 수입의 82.3%를 차지하는 등 양국간의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수출: 3,145백만 달러

o 수입: 334백만 달러

□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49건, 511백만 달러(2008년 3월말 기준)

V. 종합 의견

- 파나마 경제는 2004년 이후 주 교역국인 미국의 경제호조세 및 세계 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파나마 운하 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미국의 경기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2008년에는 경제성장세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정부지출 증대 및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흑자폭도 감소될 전망이다.
- 2004년 임기를 시작한 또리호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 행정절차 개혁, 파나마운하 운영방안 개선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을 상승, 빈민구제정책의 성과 부진 등으로 지지도가 다소 하락하여 2009년 5월 실시 예정인 대선에서 현 여당(PRD)의 재집권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함.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존재하나,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반정부 단체의 활동도 없어 내란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2008년 파나마는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을, GDP 대비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나,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추진으로 파나마 운하 수입 증대, 건설업 호황에 따른 고용 창출 등 파나마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문의 : 전문연구원 이은경 (☎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